

“일상 곳곳에 침투한 코로나… 추가 대책 치열하게 고민”

정세균 총리, 전북도서 회의 주재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행정 명령
기본방역수칙 업소용 포스터 제작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각부처, 시·도 영상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 시군구, 경찰청 등이 참석하는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 전북도·서울시·경기도의 조치 사항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보고에서 최근 환자 발생 현황과 추이 분석, 주요 방역 조치 사항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

황을 보고했다.

전라북도의 주요 방역조치로는 전주 시, 완주군(이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격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 명령,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기본방역수칙 업소용 포스터 제작·배부·

계첩 일괄 지원,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지자체·경찰 합동점검 시행을 설명했다.

특히 전북도는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

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 명령’을 발동해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본방역수칙 업소용 포스터 제작·배부·계첩 일괄 지원은 매출이 감소하여 어려운 업소에 포스터를 계첩하게 하는 일반적인 지시보다는 직접 제작, 이용 가능인원 기재·배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지난 주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는 일상 곳곳에 훨씬 가까이 침투해 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하

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추가 대책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지켜 계시지만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주변의 이웃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사회 저변에 숨어 있는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완성 전까지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강성대 기자 ksd1008@metroseoul.co.kr

소진공-경북테크노파크, 소상공인 성장 지원 강인규 나주시장 ‘탈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지속 성장 지원 위한 업무 협약
경북 소상공인 스마트화 등 지원



지난 6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북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소진공은 조봉환 이사장이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과 지난 6일 대전 소진공 본사에서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소진공과 경북TP는 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업무 등에 대한 수요 발굴·지원뿐만 아니라 소공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소공인이 지속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북TP는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소공인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스마트공방 기술 보급 사업’ 저점기관으로 선정돼 소공

인 스마트공방 구축, 역량 교육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TP와 협력해 스마트·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을 통해 소공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공인 작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품·기술개발, 공정과정 개선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지원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일상 속 소소한 행동부터 실천”
나주시, 자원순환 시책 추진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고고 챌린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고’, 반대로 해야 할 한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로 지난 1월 환경부 장관에서부터 릴레이 지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의 지명을 받은 강시장은 “일회용품 사용은 멈추고! 다회용품 사용은 달리고!”를 약속하고 해당 문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명했다.

강인규 시장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탄소중립시대 도래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며 “일

회용 종이컵 사용 자제, 투명 페트병 배출, 아이스팩 재사용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상 속 소소한 행동부터 실천해가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나주시는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시책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강성대 기자

‘부산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부산시, 3개 창업 지원기관과 협업
인증서·인증현판과 창업활동 지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으로 나누어 기관별 자금지원과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1년도 부산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 3개 클럽(밀리언클럽, 플래티넘클럽, 브라이트클럽) 통합 모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밀리언클럽’은 연매출 5억원 이상 창업기업 25개사를 선정해 경쟁력 강화지원(최대 200만원), 사업고도화 지원(최대 2000만원)과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의 3개 창업 지원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브라이트클럽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플래티넘클럽’은 투자유치 금액 1억원 이상인 창업기업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컨설팅 및 기업설명(IR)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브라이트클럽’은 유망 기술 및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30개사에 기업당 최대 800만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온라인 전시 운영, 국내·외 판로,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개 클럽 공통 지원 사항으로는 부산시에서 인증하는 ‘부산대표 창업기업’ 인증서 및 인증현판과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멤버십 혜택이 있다. 멤버십은 금융기관 금리·보증 우대, 언론 홍보, 제품 촬영 지원과 그밖에 카셰어링 서비스, 공유오피스 입주, 숙박시설 예약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운영 중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화순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최대 400만원까지

의한 방법으로 퇴비, 사료, 건조, 소멸하는 기가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16일까지 화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음식물 분쇄 등으로 하수도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은 관련 인허가를 받아 화순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급식소 등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화순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자격 등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감량기 구매 비용의 60%까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 2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원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원 가능함감량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에

/전남=강성대 기자